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스콜코보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1. 스콜코보 프로젝트 개요

□ 러시아판 실리콘밸리, 스콜코보(Skolkovo) 첨단기술단지 건설 계획

-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첨단기술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함.
 - 첨단기술단지 건설 후보지로 톰스크(Tomsk), 노보시비리스크(Novosibirsk) 등이 거론되었으나, 모스크바와 인접한 스콜코보¹⁾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음.

□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설립 배경

-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음.
 - ※ 러시아는 2009년 경제성장률 -7.9%, 산업생산증가율 2.7% 등 기록
- 에너지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를 설립해 IT 등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1) 스콜코보는 모스크바시 서쪽 20km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정부기관 및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Skolkovo Moscow School of Management)이 위치하고 있음.

<그림>

스콜코보 위치 및 도시 예상도



자료: RIA NOVOSTI.

2. 스콜코보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내역

□ 스콜코보를 첨단기술 혁신도시로 건설 예정

-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IT),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생의학, 원자력 기술 등 5개 분야 연구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2010~15년 약 36억 6,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예산 중 선진화 및 혁신부문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
- 스콜코보 혁신도시 1차적으로 1억 3,6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나 35억 3,0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었음.

- 스콜코보 첨단기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필요한 연구 인력이 확보되기까지는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스콜코보 혁신도시 프로젝트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억 달러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예 산	1.36	5.4	7.3	8.9	11	2.7	36.66

자료: Moscow Times.

□ 외국기업의 참여계획

- 외국 기업으로는 시스코(Cisco), 보잉(Boeing), 노키아(Nokia), MIT, 지멘스(Siemens) 등이 동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금년 6월 미국 방문 시 양국간 정상회담에 앞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시스코, 애플 등을 방문하는 등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표 2> 해외 기업의 스콜코보 프로젝트 참여 현황

기업명	참여 현황
시스코(미)	10년간 1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체결
보잉(미)	러시아 회사와 공동으로 300명의 IT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여객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
노키아(핀)	Nokia Research Center 설립 논의 중
지멘스(독)	개발 지원 및 단지 운영에 참여 예정
MIT(미)	실제 교육과정과 인재양성 등 과학 분야에 적극 투자 예정
ENEL (이탈리아)	에너지 관련 투자 검토

자료: 각종 언론매체 종합.

- 러시아 정부는 레노바(Renova) 회장 겸 러시아의 대표적인 부호인 베크셀베르그(V. Vekselberg)²⁾를 동 프로젝트 사업 총괄로 임명해 최첨단 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베크셀베르그 이 외에도 스콜코보 프로젝트의 과학기술 자문으로 200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알페로프(Z. Alferov) 박사를 내정하였고, 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200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콘버그 교수(R. Kornberg)를 임명함.
 - 향후 러시아 과학과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스콜코보 프로젝트의 요직에 미국인 과학자를 영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시

- 러시아는 스콜코보 투자 기업에 향후 10년간 세제혜택 부여 예정
 - 향후 10년간 또는 연간 매출이 30억 루블(1억 달러)에 달할 때 까지 임차료,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할 예정으로, 이러한 이번 인센티브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보임.
- 해외 지식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허가(Work Permit) 발급 등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 스콜코보 단지 내 자체 경찰 및 지방행정을 허용해 고질적인 부정 부패와 관료주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3. 향후 과제

□ 인프라 부족과 해외인재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

2) 러시아 올리가르흐(신흥재벌)로 레노바 그룹 회장인 베크셀베르그는 금년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64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113위에 기록되어 있음. 레노바 그룹은 알루미늄, 원유, 에너지 등 원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대기업임.

-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특별경제지역(SEZ)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등의 지역에 생명공학, 나노공학, 핵 기술 등의 연구·개발 분야의 센터를 건립한 경험이 있어 스콜코보 혁신단지 건설 프로젝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공적 추진을 낙관함.
 - 러시아 정부가 경제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콜코보 혁신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스콜코보 프로젝트는 제조업 등 연관 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해 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크했으나 유능한 해외인재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러시아 내에는 이미 기술혁신, 산업생산지구 등 네 개의 특별경제 지역이 설치되어 있어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있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인턴 이재상
 (☎ 02-3779-6653/5659)
 E-mail: johuh@koreaexim.go.kr